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5.01.07.(수) 15:00~17:20
		장 소	공대 206호 회의실
제 목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		
참석위원	기획처장 오이석	학생처장 이선우	사무처장 전성표
	교학관리처장 김보영	외부전문위원 심재익	
	(서울)총학생회장 심현우	(서울)법과대 학생회장 신진욱	
	(세종)총학생회장 조현경	(세종)과학기술대 학생회장 한승주	
불참위원			
회의내용	<p>■ 위원장 (기획처장 오이석) :  등록금심의위원 총 9명이 전원 참석하였음을 확인하고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2차 회의 시작을 선언함.</p> <p>① 외부심사위원 심재익 위원 소개 및 상호 인사.  ② 1차 회의록 보완, 수정 후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b>회 의 내 용</b></p> <p>■ 기획처장 : 학생위원들의 요청자료 중 등록금책정에 따른 학사일정 자료를 학생위원 측에 전달하고 설명함. 일자별로 신입생 등록금 고지, 신입생 합격자 발표, 신입간부연수, 신입생 등록금 납부, 장학위원회, 등록금고지서 발송 및 재학생 등록기간 등 학사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2월 6일 금요일까지는 등록금 책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며 7차까지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p> <p>■ 사무처장 : 학생위원 측에서도 2015 총학 연수교육 등 학생회 일정을 고려하여 등심위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의견을 이야기해달라고 함.</p> <p>■ 서울 총학생회장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일정을 미리 정해놓기보다는 유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필요시 추가적으로 오픈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음.</p> <p>■ 사무처장 : 작년의 경우 본 회의와는 별개로 총학생회장이나 학생위원들이 위원장이나 사무처장을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논의와 추가협의를 하였고 세종캠퍼스에서도 1회 정도 본 회의를 진행하였음.</p> <p>■ 학생처장 : 신입생 등록금 가고지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 변경이 학사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써 능동적으로 잘 진행해 나가자고 함.</p> <p>■ 서울 총학생회장 : 요청자료에 대한 자료 제공이 언제 가능한 지 문의함.</p> <p>■ 기획처장 : 2013학년도 결산서 및 2015학년도 가예산(안)을 간사를 통해 전달함.</p> <p>■ 기획처장 : 2015학년도 가예산(안) 대해서는 학생위원들이 검토해 본 후 다음 회의시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으며 사무처장께서 2015 가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시기 바람.</p>		

회의내용

- 사무처장 : ① 2015학년도 예산수립을 위해 각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계정별로 가감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자료임.
- ② 총수입은 2,613억월이 예산이 되고 각 부서의 요구예산은 3,087억월으로 차액 474억월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③ 공사를 포함하여 여러 사업의 우선순위, 구조개혁 등 대학평가에 미치는 영향, 대학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삭감 및 조정이 필요함.
- ④ 학생위원들도 검토 한 후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세종 총학생회장 : 2015학년도 가예산(안)의 미사용전기이월자금 33억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간사 : 2014학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2015학년도에 학교로 입금되기 때문에 2014학년도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자금예산서 지출예산에 반영되며 동일한 금액이 2015학년도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수입예산에 반영되는 것임.
- 기획처장 : 학생위원들도 검토한 후 질문을 모아서 재무팀으로 질의하거나 3차 회의에서 질문하는 것이 좋겠음.
- 간사 : 작년의 경우 결산서 관련하여 학생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아닌 별도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음.
- 기획처장 : 올해도 필요할 경우 예,결산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재무팀으로 문의하고 설명을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 세종 총학생회장 : 세종캠퍼스만의 예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간사 : 세종캠퍼스의 각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 직접 요구한 예산을 합산하여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인건비 등 간접비와 서울캠퍼스 행정부서에서 일괄 편성한 예산은 반영하기 어려움.
- 서울 총학생회장 : 금융상품권 투자 자료에 대해서 질의함.
- 사무처장 : 제1금융권만 거래를 하며 제2금융권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음.
- 간사 : 2011년도부터 적립금의 경우 50% 한도 내에서 위험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본교의 경우 주로 제1금융권의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함.
- 기획처장, 사무처장 : 2014학년도 가결산에 대해서는 재무팀장이 1월 19~21일경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예정이며 사전에 학생측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사무처장 : 적립금 사용내역은 2014학년도 가결산서와 함께 설명할 예정임.
- 사무처장 : 법인채무성 관련해서는 등록금 책정에는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6차 회의 때 설명할 예정임.
- 서울 총학생회장 : 자료가 확보되면 학생처를 통해서 즉각적인 전달을 요청함.
- 기획처장 : 회의 전에 자료를 전달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자고 함.
- 학생처장 : 3차 회의부터는 회의 안건을 미리 명시하여 배포된 자료를 위주로 검토함으로써 회의 안건 범주 내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음.
- 사무처장 : 2015학년도 가예산(안) 설명과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관련 설명을 3차 회의 안건으로 제안함.
- 세종 총학생회장 : 대부분의 자료 제공 시 세종캠퍼스만의 자료를 요청함.
- 서울 총학생회장 : 타 대학과 비교하여 직원의 수가 적음을 지적하며 직원을 충원할 계획에 대해 질의함.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처장 : 교원은 각종 평가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원확보율을 늘려나가고 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원을 제한하고 있음.</li> <li>■ 세종 총학생회장 : 비정규직인 조교 등의 임시직 확대에 대해 질의함.</li> <li>■ 사무처장 : 임시직의 경우 지속성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일 보다는 단순 업무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li> <li>■ 서울 총학생회장 : 본교 서울캠퍼스의 경우 재학생 수 12천명에 해당하는 직원 수 324명, 세종캠퍼스는 재학생 6천명에 직원 108명, 한양대학교는 재학생 15천명에 직원 700명, 고려대학교는 재학생 20천명에 직원 684명, 연세대학교는 재학생 20천명에 893명인데 직원 확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질의함.</li> <li>■ 사무처장 : 교수님들이 행정보직을 맡아 많이 도와주시고 있음. 이번에 대학구조개혁 자체평가를 위해 행정효율을 위한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 업무감사, 직무분석 등을 통해 유휴인력부서의 기구통합, 업무재조정 등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증원을 협의하겠음.</li> <li>■ 서울 총학생회장 : ① 학생처의 경우, 담당 직원선생이 연가, 병가 시 대체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고 한 선생님이 너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학생회 관련 업무가 지연되기도 하며 타 부서도 다르지 않다.        ② 유휴인력의 조정으로 노동력 배분도 필요하지만 정규직원을 임시직인 조교로 대체하면서 업무의 연계성에 문제가 되기도 함.        ③ 기본적으로 직원의 총수가 너무 적다. 본교를 연세대와 비교해보면 학생의 수는 1.5배인데 직원의 수는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교학협의회를 통해 매년 문제가 제기되지만 대학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인지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④ 2015년부터는 갑자기 지표가 좋아지는 대학보다는 매년 순차적으로 지표가 개선되는 대학에 좋은 점수가 부여되고 직원의 수가 평가지표의 항목으로 언제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함.</li> <li>■ 사무처장 : ① 총학생회장의 의견에 공감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음.        ② 다만, 기업이나 학교가 어려운 경영위기에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진행되는 것이 인적구조조정임. 인적자원은 한 번 채용되면 해고가 어렵고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됨. 예컨대 Y대학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3년 동안 300여명 이상을 정리해고하면서 큰 진통을 겪은 사례가 있음. 본교는 최소한의 필수 인원으로 운영 되고 있음.        ③ 이러한 이유로 아웃소싱을 하거나 한시적으로 계약직을 통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④ 매년 제기되는 직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서 적극 검토하고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진술함.</li> </ul>
------	---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처장 : 본교의 기구, 편제 등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음.</li> <li>■ 서울 총학생회장 :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액이 전년대비 1,700억 정도 증액되었고 등록금 인상 방지와 장학금 확충의 기초는 유지되고 있음. 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임. 2014-2기 교육환경개선안 자료를 언제 받을 수 있는 지 질의함.</li> <li>■ 기획처장 : 항목별로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정리가 오래걸리지 않을 것임.</li> <li>■ 서울 총학생회장 : ①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하여 기자재 구입이 교육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15학년도에 교육환경개선 사항으로 진행해야 할 내용도 1월 13일까지 수합해서 2014학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② 학교에서는 2014학년도에 신청한 내용이 2015학년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제공해주길 요청함.</li> <li>■ 기획처장 : 자료를 확인한 후 학생지원팀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음.</li> <li>■ 법과대 학생회장 : 교원도 부족한 상황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1항에 의하면 본교의 교원법정정원은 723명이어야 하는데 학부전임교원이 523명으로 200명이 부족한 실정임.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교육여건에서 전임교원확보율이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함.</li> <li>■ 기획처장 : 현재 신임교원 초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신임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학교의 발전과 교육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서라도 훌륭한 교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li>■ 서울 총학생회장 : ① 구조개혁평가의 경우 교육여건 18점 중 전임교원 확보율이 8점을 차지하며 학사관리 12점 중 수업관리 8점에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강의 규모의 적절성이 포함되어 총 26점으로 전체 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정도로 중요한 지표임. ② 학사관리영역에서 수업관리의 엄정성과 성적분포의 적절성이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요소로 반영된 것과는 다르게 전임교원의 지표는 매년 중요한 지표로 간주됨. ③ 이러한 이유로 학교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에 있어서 목표치를 가지고 전략을 구상해주시길 요청함.</li> <li>■ 기획처장 : ① 목표는 만점이지만 3년(2013~2015)을 평가하다보니 지표를 한 번에 끌어올리기 어려움. 3년 후에도 구조개혁평가가 진행되므로 올해 최선을 다하고 내후년에 더 잘해서 만점을 받도록 노력하겠음. ② 구조개혁평가는 학교의 존립에 관련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걱정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함.</li> <li>■ 서울 총학생회장 : ① 좀 더 나아가서 2단계 평가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의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제2기숙사 신축 500억원, 세종캠퍼스 강의동 신축 160억원, 교사동 신축 90억</li> </ul>
------	--

회의내용	<p>원, 제3기숙사 신축 200억원 등 2025년까지 총 7,2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되어 있는지?</p> <p>②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의 경우에 의견수렴과 여건분석 수립과정의 합리성 및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에 있어서의 체계성과 구체성 지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p> <p>■ 기획처장 : 이번 방학 동안에 두 가지를 진행하였음.</p> <p>① 구조개혁평가 관련하여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 학부모, 산업체관리자는 설문지를 매개체로 참여하였음.</p> <p>② 이것과 별개로 2주기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학생, 직원,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1월말에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아 2월말에 책자로 발간됨.</p> <p>③ 서울 및 세종 캠퍼스별로 각각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분야는 특성화, 내실화, 수월화, 국제화이고 7개의 추진과제가 있으며 각 추진과제에는 세부추진계획들이 있음.</p> <p>■ 서울 총학생회장 : ① 2단계 평가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된 이유를 질의함.      ② 작년 신입간부연수 시 전 위원장이 중장기발전계획의 로드맵을 보여주신 하셨는데 학생들이 요청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함.      ③ 학교가 30년을 바라보며 진행하는 발전계획이 필요할 때마다 계획만 수립하고 무계획처럼 흘러가는 것이 감지됨.      ④ 교육부 내부소식에 의하면 적립금을 적립하는 목적이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천과 연계성, 합리성, 적절성을 띠고 실제로 진행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올해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구체화 된 세부 플랜을 볼 수 있는지 질의함.</p> <p>■ 기획처장 : 중장기 발전계획의 2주기는 2015년까지이고 3주기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로 구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표중심으로 10년 후에 정량적으로 성과를 목표치까지 달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있음.</p> <p>■ 교학관리처장 :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시해야하는 것임. 100% 달성은 어렵겠지만 실현가능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태스크 팀이 만들어졌음. 기초 작업으로 교수,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집필하고 있으니 작업이 완료되면 학생들과 공유할 예정임.</p> <p>■ 서울 총학생회장 : 중장기 발전계획이 언제쯤 가시화되는지 질의함.</p> <p>■ 기획처장 : ① 1월말 쯤 초안이 나오며, 학생 측에서도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함.      ②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은 두 팀으로 나누어 운영이 되고 A팀은 2주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B팀은 A팀이 검토하고 분석한 자료와 의견을 받아서 3주기 발전계획 항목</p>
------	---

회의내용	<p>과 세부적 실천계획 및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한 지표를 도출하여 달성가능 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꽤 진척이 되었음.</p> <p>③ 1월 27일 신입간부연수 시 중장기 발전계획 초안을 발표할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처장 : 중장기 발전계획은 이전부터 발전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발표되었으며 2주기가 2015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3주기를 2015년부터 작성하는 이유는 구조개혁평가의 2주기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임.</li> <li>■ 교학관리처장 :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3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2월말까지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모두 완료하는 것이 목표임.</li> <li>■ 세종 총학생회장 : 현재 학생 수를 고려해 볼 때 106명의 학생으로부터 설문지를 받았다는 것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li> <li>■ 기획처장 : 학생 간부들로부터 설문지를 더 받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제시함.</li> <li>■ 교학관리처장 : 발전계획 설문지는 종강과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었고 세종캠퍼스의 경우에 최종 집계는 학생 210명, 직원 27명, 교수 108명이 참여하였음.</li> <li>■ 학생처장 : 방학 중이라 학생봉사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음. 필요하다면 학생회장을 통해 2차 설문을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보자고 함.</li> <li>■ 교학관리처장 : 세종의 경우 단과대학별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고 대학구조개혁 관련해서는 세종캠퍼스 총 6천여명 학생 중에 4천명이 참여하였음.</li> <li>■ 기획처장 : 서울캠퍼스의 경우 구조개혁 관련된 설문은 진행 중에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꽤 많이 참여했지만 산업체관리자는 참여가 부족했음.</li> <li>■ 서울 총학생회장 : 학생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공론화를 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li> <li>■ 서울 총학생회장 : 학생식당 임대료 관련해서 서울은 년 약 5천만원, 세종은 약 3천만원 정도인데 임대료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함.</li> <li>■ 사무처장 : 시설사용료는 과거 약 1억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으로 내려 온 것임.</li> <li>■ 세종 총학생회장 : 임대료가 비싸 음식의 가격은 높고 서비스 질은 떨어져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 식사를 함. 이러한 이유로 수요가 줄고 식당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니 문제임.</li> <li>■ 서울 총학생회장 : 인근 고려대는 임대료를 3백만원 정도 받고 있고, 타 학교는 생활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본교는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가도 교직원식당과 큰 차이가 없고 식사 질도 떨어짐. 이것은 모니터링 운영, 매니저나 영양사와 이야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임대료의 문제이며 학교로부터 지원이 되지 않아 단가가 올라가는 것임. 학교도 수익을 창출해야하니 일정부분 임대료를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5천만원은 비싸다고 생각함.</li> <li>■ 사무처장 : ① 적립금이 없다고 가정 할 경우 학교가 시설사용료 등을 받지 않아 등록금 외 수입이 여러 분야에서 줄어들면 적자운영에 이르게 됨. 적자운영을 하지 않으려면 등록금을 더 받거나 후생복지시설, 유희시설, 지식재산권, 신기술 등을 통하여 수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li> </ul>
------	--

회의내용	<p>② 본교는 캠퍼스 위치가 타 대학과 달리 상가지역에 인접해 있어 저렴하고 다양한 식당이 많아 학생들이 외부 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세종캠퍼스의 경우에는 방학과 주말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남. 그리고 1,2학년의 사이버강좌로 식수 인원도 많이 줄었다고 함.</p> <p>③ 현재 본교의 시설사용료가 타 대학에 비해 그리 높지 않으며 작년 학생식당 실태조사 시 학생회에서도 공동 조사하였음.</p> <p>■ 서울 총학생회장 : ① 첫째, 적립금이 없는 대학은 사무처장님 말씀이 맞지만 2013학년도 적립금 이자수입이 약 365억 정도 발생한 본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p> <p>② 임대료가 작은 부분이지만 기본적 욕구인 식사에 있어 학생들이 예민할 정도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p> <p>③ 흥문관 관리비용의 경우 자체수익으로 충당하려다보니 상업시설이 많아지고 교육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폭탄을 맞는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p> <p>④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임대료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임대료 건을 논의하고자 함.</p> <p>■ 세종 총학생회장 : 당장 업체가 나가야 할 상황이라 해결방안을 제시하길 원함.</p> <p>■ 학생처장 : 여기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 담당자와 학생처와 머리를 맞대고 학생식당의 질과 가격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함. 주변상가, 식당주인, 학생회, 학생처에서 가격의 문제인지, 품질의 문제인지 최선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논의해보자고 함.</p> <p>■ 기획처장 : 차기 회의일정을 정하고 폐회를 선언함.</p>		
협의 및 의결사항	<p>1. 차기 회의일정 : 2015. 1. 14.(수) 15:00 공대(K동) 206호 회의실</p> <p>2. 2015학년도 가예산(안) 및 (국가)장학금에 대해 차기회의에서 설명하기로 함.</p> <p>3. 2014학년도 가결산 및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1월 21일 경에 설명하기로 함.</p> <p>4. 2014학년도2학기 교육환경개선 집행 자료를 학생지원팀을 통해 전달하기로 함.</p>		
특기사항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75 1769 949 1859">작성년월일</td> <td data-bbox="949 1769 1396 1859">2015. 1. 12.</td> </tr> </table>	작성년월일	2015. 1. 12.
작성년월일	2015. 1. 12.		
회의록 배부처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75 1859 949 1948">작성자</td> <td data-bbox="949 1859 1396 1948">재무팀 정 종 혁</td> </tr> </table>	작성자	재무팀 정 종 혁
작성자	재무팀 정 종 혁		